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Weekly 2024년 제91호  
2024.01.25.(목)

##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 주요국 정책·통상 이슈

【한국】 韓, 배터리 밀도·재활용 가치 따라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한국·영국】 韓·英 FTA 1차 개선협상 시작...공급망·에너지 분야 반영

【EU】 EU 이사회, 유럽전략기술플랫폼(STEP) 구축 합의

### 주요 산업별 이슈

【광물】 美 싱크탱크, 美 정부에 中 희토류 기술 수출금지 관련 정책 권고

【이차전지】 中, 100만 톤 규모 리튬 매장지 발견

【바이오·의료】 EU, 의약품 부족 사태 대응 위한 '핵심의약품연합(CMA)' 출범

### 주간 이슈 포커스

【EU, 통상】 EU 회원국,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 등 보조금 지급 확대

### 원자재 뉴스 PLUS

【광물】 인니 니켈 생산량 증가로 글로벌 니켈 가격 3년 만에 최저치 기록

## 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딜로이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소개와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 III. 공급망 소식통

한국무역협회, 물류 전문기업과 함께하는 흥해·파나마 물류 리스크 진단 및 대응 세미나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 주요국 정책·규제 이슈

#### 한국

#### 韓, 배터리 밀도·재활용 가치 따라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 👉 1.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6일 국내 자동차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올해 적용될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공유했다고 보도
  - » 정부는 승용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배터리 무게와 에너지 출력을 수치화하는 '배터리 효율 계수'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
  - » 또한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은 5,500만 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국내 설치된 애프터서비스센터 수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을 확대하며, **첫 전기차 구매자·청년층·취약층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
- 👉 중국産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수입 전기차와 주로 삼원계(NCM·NCA) 배터리를 적용하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간 보조금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 환경부는 자동차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며 개편안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측

출처: 연합뉴스('24.1.21), 파이낸셜뉴스('24.1.21)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한국·영국

#### 韓·英 FTA 1차 개선협상 시작...공급망·에너지 분야 반영

- 👉 1.23일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1차 공식협상이 1.23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발표
  - \* '19년 서명한 韓·英 FTA는 영국이 EU 탈퇴(Brexit)를 추진하면서 아시아 국가와 처음 맺은 FTA로, '21.1월에 발효
  - »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기존 협정 분야의 최신화에 한정하지 않고 **▲공급망, ▲청정에너지, ▲디지털, ▲바이오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통상 규범 도입 방안**을 논의
  - » 한국의 對英 교역액은 '23년 111억 달러(약 14조 8,000억 원)\*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은 자동차·휴대전화·항공기 부품 등을 주로 수출한 반면, 원유·의약품·우라늄 등을 영국에서 수입
- \* [자료원: K-stat]
- 👉 양국은 '23.11월 윤석열 대통령의 英 국민 방문 계기에 FTA 개선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이후 협상분야 등에 대한 세부협의를 거쳐 금번 협상을 통해 본격적으로 착수
  -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질서 하, 양국이 대내외 불확실성에 함께 대응해 나가는 한편, 양국 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통상환경 조성**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당부

출처: 산업부 보도자료('24.01.23), K-Stat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EU

EU 이사회, 유럽전략기술플랫폼(STEP) 구축 합의

- 🕒 1.10일(현지시간) EU 이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럽전략기술플랫폼(STEP)\*’ 구축에 대해 동의한다고 발표
  - \* 유럽전략기술플랫폼(Strategic Technologies for Europe Platform, STEP): 핵심 전략 기술에 다양한 EU 자원 및 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기술 프로젝트 플랫폼(STEP) 취지와 맞다고 인정될 시 1개 기금이 아닌 여러 자금원으로부터 누적 수혜 가능
  - ▶▶ 동 플랫폼은 신규 사업이 아닌 기존 기금 등을 재조합하는 것으로 공공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함이며, 주권 포털 및 주권 인장 시스템 구축·핵심기술 내 추가 투자 촉진 등이 포함
- 🕒 금번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유럽의회와 협상할 계획이며, EU 예산은 2.1일 개최될 특별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
  - ▶▶ 이사회는 주권 포털, 인장(seal) 등 집행위 제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했으나, 예산 문제의 경우 ‘24~’27년 EU 예산(MFF) 확정 후 협의 예정\*
  - \* 현재 EU의 중기예산(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STEP 운영비 등 관련 예산은 EU 예산이 결정되어야만 수립 가능

출처: EU 주간 브리핑 113호(‘24.1.17) 등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주요 산업별 이슈



광물

美 싱크탱크, 美 정부에 中 희토류 기술 수출금지 관련 정책 권고

- 🕒 1.8일(현지시간)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中 희토류 가공 기술 수출금지 조치\* 관련, 미국의 對中 희토류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언
  - \* 中 상무부는 지난 ‘23.12.31일(현지시간) 희토류 추출·분리 기술의 수출금지를 발표
  - ▶▶ 연구소는 中 정부의 희토류 기술 수출금지가 美 국가 및 경제적 희토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하며 미국의 對中 자원 의존도 축소 및 기술 공급망 강화를 위한 대응 방안 제시
  - ▶▶ 권고 정책에는 ▲상위 희토류 매장국\*과의 협력을 통한 희토류 공급원 다양화 도모, ▲보조금 지원 및 세제 혜택 등 산업 육성 지원책을 통한 美 희토류 가공 기업 비용 절감 여력 확대, ▲미국 내 희토류 처리 용량 증대 등이 포함
  - \* 상위 희토류 매장국: 베트남(17%), 브라질(16%), 인도(5%), 호주(4%) 등 [자료원: USGS, Mineral Comodity Summaries 2023]
- 🕒 한편 美 정부는 정책 자금 지원을 통해 MP Material, Lynas Rare Earth 등 美 기업의 희토류 가공 역량을 강화
  - ▶▶ 또한 美 하원 對中 경쟁특위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 내 희토류 자석 생산 활성화를 위한 연방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도 마련을 권고

출처: 전략국제문제연구소(‘24.1.8),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24.1.16)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이차전지

中, 100만 톤 규모 리튬 매장지 발견

- 👁 1.19일(현지시간) 中 현지 언론에 따르면, 中 자연자원부는 지난 17일 쓰촨성 야장현에서 약 100만 톤 규모의 리튬 매장지\*를 발견했다고 보도
  - \* 상위 리튬 매장국: 칠레(36%), 호주(24%), 아르헨티나(10%), 중국(8%) 등 [자료원: USGS, Mineral Comodity Summaries 2023]
  - »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스마트폰 등의 핵심 원료인 리튬이 최근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며 갈수록 가치가 치솟고 있는 상황
  - »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중국은 '23년 기준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약 8%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공 단계에서는 중국이 전 세계 리튬 정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해 세계 1위를 차지
- 👁 제임스 친 호주 태즈메이니아대 교수는 “새로운 리튬 매장지가 중국의 배터리 분야에 대한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힘
  - \* 中 싱크탱크 EV100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약 70%를 생산 중
  - » 시장조사기관 Statista에 따르면, '20년 31만 톤에 불과한 세계 리튬 연간 수요량은 '35년 약 38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출처: 신화통신('24.01.19), 한국경제('24.01.22)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바이오·의료

EU, 의약품 부족 사태 대응 위한 '핵심의약품연합(CMA)' 출범

- 👁 1.16일(현지시간) EU 집행위 산하 유럽보건긴급대응당국(HERA)은 역내 의약품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의약품연합(CMA)\*을 출범한다고 발표
  - \* 핵심의약품연합(Critical Medicines Alliance, CMA): '24.10월 EU 집행위에서 발표한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장기적 차원에서 의약품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
  - » 동 연합은 향후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유럽 역내 생산 역량강화, ▲EU 의약품 전략적 재고 보유에 관한 공통 입장 수립 등을 추진하고, 의약품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자금 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
- 👁 금년 봄에 본격적 활동 개시, 향후 5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올 가을경 핵심의약품 관련 첫 번째 권고 보고서 발표 예정
  - » 한편, 집행위는 해당 연합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EU 공동이해관계 프로젝트(IPCEI)\*'를 통해 지원할 방침
  - \* EU 공동이해관계 프로젝트(IPCEI): EU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유럽의 공동 이익을 기준으로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예외적 국별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제도로 배터리·반도체 프로젝트 등에도 자금이 조달된 바 있음

출처: KBA Europe('24.01.18)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주간 이슈 포커스



EU, 통상

EU 회원국,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 등 보조금 지급 확대

- 🕒 1.8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지난 '23.11월 기한이 연장된 한시적 보조금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독일·프랑스의 산업 보조금 지원을 승인
- ▶ 美 IRA에 준하는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국가 상황별 보조금 지원 승인을 통한 EU 역내 산업 보호 및 육성 지원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 개요

①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 (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TCTF)</li> <li>▶ (채택)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발 에너지 위기,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대응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산업 분야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 규제 완화 조치 실시('23.3.9일)</li> <li>▶ (연장) '23.12.31일 만료 예정이었던 한시적 보조금 규제 완화 조치 6개월 연장(~'24.6.30일)</li> </ul>	
②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NZIA)의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해 전략적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에 대한 자금 조달 원활화</li> </ul>	
③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지급 대상 확대, ▲보조금 상한 확대, ▲보조금 지급 절차 간소화, ▲매칭보조금 도입*</li> <li>* 매칭 보조금(Matching Aid): 역외 이전 가능성이 높은 전략적 청정 산업 부문 프로젝트에 대해 제3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역외 투자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li> </ul>	
④ 지원 현황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경) 스웨덴 배터리 제조기업 노스볼트(Northvolt)는 美 IRA에 따라 8억 5,000만 유로(약 1조 2,350억 원) 상당의 보조금 수혜를 받고 美 진출을 계획</li> <li>▶ (내용) 노스볼트에 대한 獨 정부의 매칭보조금 9억 200만 유로*(약 1조 3,100억 원) 최초 승인(1.8일)</li> <li>* 직접 보조금 7억 유로 + 국가보증금 2억 200만 유로</li> <li>▶ (계획) 동 보조금을 통해 노스볼트는 美 진출 대신 獨 북부 도시 하이데(Heide)에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생산기지 설립 예정</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경) 프랑스 친환경 에너지 전환 필요성 대두</li> <li>▶ (내용) 佛 정부에 친환경 에너지 제조사 및 산업 부품 관련 보조금 29억 유로(약 4조 2,130억 원) 승인(1.8일)</li> <li>▶ (계획) '25.12.31일까지 태양광·배터리·풍력·터빈·히트펌프 제조사와 해당 산업의 부품 생산 및 핵심 원자재 생산계획이 있는 기업에 세금 공제의 형태로 지원 전망</li> </ul>
	루마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경) 러·우 사태에 따른 우크라이나 해상운송 경로 통행 차질로 인해 루마니아 다뉴브 강과 흑해 항구 물량이 급증</li> <li>▶ (내용) 항구 지원 1억 2,600만 유로(약 1,830억 원) 보조금 지급 승인(1.11일)</li> <li>▶ (계획) 루마니아 항구 병목 현상 완화, 적체 물량 취급 및 저장 원활화를 위한 관련 업계 지원 예정</li> </ul>

- 🕒 美 IRA 등에 대응하고 역내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효과가 있지만, 일각에서는 EU 내 경제 강국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일부 회원국의 우려 존재
- ▶ 독일 하벨 부총리는 “유럽이 직면한 경쟁은 역내 국가들 간이 아닌 유럽과 美·中 간 경쟁”이라고 일축

출처: EU 주간 브리핑 113호('24.01.17) 등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광물

인니 니켈 생산량 증가로 글로벌 니켈 가격 3년 만에 최저치 기록

1.22일 국내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정·체련 생산능력 확대에 의한 니켈 생산량 증가로 인해 글로벌 니켈 시장 가격은 '21년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 [출처: 국내언론종합('24.1.22)]

\* '23년 최고가 30,000\$/톤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16,000\$/톤 수준 기록

- 니켈 가격의 향방은 인니 대선에 달려 있다는 평가로, 아니스 대선 후보는 무분별한 니켈 생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향후 대선 결과가 니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1월 3주)

◆ [비철금속] 칠레 증산 전망으로 동 가격↓, 공급과잉에 따른 재고량 확대로 니켈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2년	'23년	전년비(%)	1.2주	1.3주	전주비(%)
동	8,797	8,478	△3.6	8,301	8,243	△0.7
니켈	25,605	21,474	△16.1	16,077	15,930	△0.9
아연	3,478	2,647	△23.9	2,494	2,488	△0.2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동) 美 연준 금리인하 지연 우려 심화로 인한 달러화 가치 상승 및 칠레 동광 생산 증산 전망으로 전기동 가격하방압력이 발생했으나, 주요 거래소의 동 재고량이 감소세를 지속하며 상기 하방압력 부분적 상쇄

(니켈) 인도네시아 정·체련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공급과잉 심화로 재고량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가격하방압력 발생했으나, 주요 기업의 니켈 광산 가동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기 하방압력 부분적 상쇄

▶ 런던금속거래소(LME)의 1월 3주차 니켈 재고량은 69,310톤으로 전주대비 2.1% 증가, 10주 연속 증가세

◆ [철강] 주요국 수출량 확대로 철광석 가격↓, 中 경기둔화 우려로 유연탄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2년	'23년	전년비(%)	1.2주	1.3주	전주비(%)
연료탄	348.65	173.32	△50.3	129.79	124.76	△3.9
원료탄	364.99	295.71	△19.0	336.82	335.80	△0.3
철광석	120.26	119.32	△0.8	136.87	128.79	△5.9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분광)

(철광석) 中 경기둔화 우려 및 브라질 철광석 수출량 증가로 가격하방 압력 발생

▶ 브라질의 12월 철광석 수출량은 3,965만 2,000톤으로 전월대비 25.9%, 전년동월대비 23.8% 증가

(유연탄)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로 연료탄 가격 전주대비 3.9% 하락

▶ 연료탄 일일가격은 톤당 126달러에서 톤당 118달러로 하락세 시현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1월 3주)

◆ [희소금속] 철강·이차전지 분야 수요 부진 속에 가격↓ 지속, 정체된 영구자석 분야 수요 지속으로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코발트: U\$/lb)			주간평균 (U\$/톤) (코발트: U\$/lb)		
	'23년	'24년	전년비(%)	1.2주	1.3주	전주비(%)
페로망간	1,266	1,125	△11.1	1,135	1,135	-
탄산리튬	35,697	13,405	△62.4	13,311	13,273	△0.3
수산화리튬	35,994	11,464	△68.2	11,220	11,188	△0.3
코발트	17.82	16.58	△6.9	16.52	16.60	0.5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330,258	331,722	0.4	320,500	275,900	△13.9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78,383	59,767	△23.8	58,040	57,300	△1.3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페로망간) 타이트한 공급으로 시장을 관망하며 가격 유지

▶ 타이트한 현물 공급 시장과 안정화된 수요 지속으로 시장을 관망하며 제안가 유지

🔍 (탄산리튬) 12월 중 많은 생산잉여 재고량으로 가격 하락했으나, 낮아진 현재 재고와 中 춘절 연휴 이후 가격 상승에 대한 일부 전망으로 구매 문의량 증가

▶ 수산화리튬의 수요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이나, 전주대비 韓 시장의 수요 반등으로 구매 문의 증가

🔍 (코발트) 中 금속가는 수요업체들의 매수 없이 재고를 통한 운영으로 제한적 시장 활동 속 가격 소폭 하락

▶ 유럽시장은 실제 수요물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제한된 거래로 가격 소폭 하락

🔍 (희토류) 영구자석 수요 부진으로 산화디스프로슘 가격 하락 후 춘절 연휴 전 신규구매 증가로 소폭 반등

◆ [에너지] 美 원유 재고 감소, 美 의회 임시 예산안 통과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세

품목	연평균 (\$/배럴)			주간평균 (\$/배럴)		
	'23년	'24년	전년비	1.2주	1.3주	전주비
두바이유	82.10	77.84	△4.26	77.81	77.53	△0.27
브렌트유	82.17	78.02	△4.15	77.24	78.36	1.11
WTI	77.60	72.68	△4.92	71.82	73.01	1.19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 (국제 유가) ▲美 원유 재고 감소, ▲美 의회 임시 예산안 통과, ▲중동 위기 고조, ▲흑한에 의한 美 원유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해 유가 상승, 美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 축소 등은 상승폭 제한 요인으로 작용



## 공급망 더 알아보기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소개와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작성]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A&A ESG 그룹 임소현 부장

국제통상에서 환경이라는 이슈가 대두되면서 무역규제의 부활에 대한 근간이 만들어지고 있다. WTO와의 합치성의 문제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로 규정하고, 녹색산업 또는 탄소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환경규제라는 명목 하에, 무역관세(tariff)가 아니라고 해석되길 바랬지만 지금은 너무나 자명하게 탄소국경세로 자리매김하였다. 최근 영국도 '27년까지 CBAM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미국은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 CCA)등을 추진하는 등 EU의 CBAM 전염성은 일시적이지 않고,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내 수출기업들은 특히 어떤 부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

'23.10월부터 유럽연합(EU)의 CBAM의 전환기간이 개시됨에 따라 이미 EU 수입업자들은 동년 4분기 수입분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24.1월 말까지 EU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그리하여, EU 수입업자뿐 아니라 EU로 직간접적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도 관련 정보 제공을 준비하느라 분주해졌다. '24.1월부터 '25.12.31일까지 해당하는 전환시점에 CBAM에 바로 적용되는 6개의 산업군은 철강, 알루미늄, 전력, 비료, 시멘트와 수소로 이에 속한 기업들은 EU 각국에 보고를 해야 한다. 이 중에서도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군인 경우에는 2차 가공제품까지 포함하고 시멘트는 원료가 되는 고령토도 포함한다. 그리고 전구물질(precursor)을 포함한다면, 전구물질의 외주공정까지 포함하여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을 해야 하고, 반대로 CN코드 7204와 같이 제외되는 품목도 존재하여 단순히 산업 구분으로 보서는 안 된다. 산업 분류 기준 또한 국가 간 또는 산업 간 일관성이 부재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CBAM은 CN코드(HS 6단위 코드)에 기반하여 품목을 설정하기에 기업들은 꼭 CN코드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수출품목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럼 왜 1월 말까지일까? 해당 품목을 다루는 국내 수출업자라면 보통 분기(역년 기반)후 1개월 내 보고서 제출이므로, 전환기간에 해당하는 보고서 마지막 제출일은 '26.1.31일까지로 정해진 것이다. 다른 기업들도 이 전환기간에 기업들의 CBAM 대응을 유형화하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미, 유해화학물질과 플라스틱, 암모니아 산업군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지만, 내재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론의 부재로 전환기간에는 채택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 EU는 '30년까지 CBAM을 모든 EU-ETS 대상품목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에, 특히 국내기업이 온실가스 집약도가 높고 탄소 다배출 산업군에 속하거나, 탄소누출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수출할 경우, 사전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

그럼 실제로 준비절차는 어떻게 될까? 먼저, EU 고객사 또는 수입업자는 '26.1월부터 시행되는 확정기간 이후에는 CBAM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25년부터 미리 준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국내 수출업자는 미리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데이터를 증빙해야 하므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사전에 체크할 부분이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수입업자가 EU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CBAM 신고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간혹, 위탁업자가 대신 신고인이 되는 등, EU에서 정식으로 신고자 지위를 획득한 업자가 실제 수입을 진행하는 협력사와 다를 수 있어, 어느 업체인지 파악이 중요하다.

승인된 신고업자는 기본적으로 EU 회원국 내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세관대리인을 통한 승인절차를 밟을 수 있기는 하다. 제3국에서 수입업자가 소재하고 EU로 보내는 경우, CBAM 등록부에 등록된 수입업자이면 허용되므로, 국내 수출업자는 EU에 승인을 받은 수입업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관련 정보 제공을 하면 된다.\*

\* 현재 전환기간이며 이행규정이 발표되지 않아, 발표예정인 3분기 이후 확인 가능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세부적으로 211가지, 크기는 4가지로 볼 수 있다. 수출입과 관련된 “일반 정보”, 수입품목에 해당하는 수입량에 대한 내재 탄소배출량 값과 관련 “전문 정보”, 그리고 배출량 일련번호와 같은 “불명확한 정보” 그리고, 상품 관련 특이사항들이 포함된 “선택 정보”이다. 이 중에서, **국내 수출기업이 공을 들여 준비해야 할 정보는 “전문 정보”**이다. 먼저, 전문 정보를 보다 쉽게 판단하고 익숙해지기 위한 방안으로 CBAM Communication Template을 다운받아서 따져보도록 하자.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만약 이것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에서 준비할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CBAM 대상 품목에 대한 개별적인 수입량 (톤으로 계산)이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보고기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자사의 배출량에 대한 보고는 무조건 해당기간에 해당하는 데이터이어야 하며, 전구물질 등에 보고해야 하며, 타사 시설군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해야 하는 경우, 전환기간에는 가능한 가장 최신 데이터 사용을 허용한다. 이후, 수입품목이 단순인지 복합인지 구분해야 한다. 복합은 전구물질(투입원료) 배출량이 0이 아닌 경우이고, 이 경우가 아니면 단순상품이라고 판단해도 좋다.

대상 상품 확인이 끝나면, 이 상품을 생산하고 수출하기 위해 직간접적인 배출량 산정범위를 정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산출방법론에는 사업장으로 구분이 되어있지만 CBAM은 시설물(installation)로 구분한다. 산정범위를 살펴보면, 기업(사업장)시설물(생산공정) 순으로 볼 수 있다. 만약 한 사업장에서 한가지 제품만 생산한다면, 사업장, 시설물, 생산공정 범위가 같아지겠지만, 보통은 사업장 내 여러 시설물이 있고, 시설물을 가지고 여러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 한 시설물 내 여러 생산공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CBAM 대상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국내 기업이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시설별 생산량과 수출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을 권한다.**

이를 구분한 이후에는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을 구분해야 한다. 보통 직접 배출이라 하면, Scope 1으로 혼동할 수 있지만, CBAM에서는 생산과 관련된 것으로 운송 목적의 이동식 장치, 즉, 이동연소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직접 배출에서는 소스스트림(예: 천연가스, 중유, 석탄 등)과 온실가스 배출원(예: 보일러, 건조로 등)을 기본적으로 파악하면 된다. 소스스트림 종류와 배출원에 따른 기준으로 배출계수가 모두 달라진다. 이에 따라 절대적인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이는 과정에서 조금 더 친환경적인(배출계수가 작은) 소스스트림 또는 배출원으로 변경이 불가피하다.

중요한 것은, 간접 배출도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외부로부터 구매해온 전력량에 대해 EU집행위가 제공하는 전력 배출 계수를 기본값으로 곱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데 한국처럼 전기를 발전하기 위한 에너지원의 비율 중 재생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작고, '23년 기준 30%가 넘는 화력발전 비중이 아직도 높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비친환경적인 에너지 소스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은 EU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간접 배출만을 놓고 봤을 때, 불리할 수 있다.

실제 수입품에 대한 내재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산정식이 아닌 EU-ETS 산정식을 따른다. 하지만,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식에 대한 확정은 '25.7월 이전에 확정될 예정이니, 금년도에는 국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IPCC나 IEA 등에서 개발한 평균적인 배출계수와 효율계수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여, 만약 국가 내에서 제공한 계수를 사용하지 않았던 경우나, 해외 사업장이 많아 일치 문제로 인해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개별 시설물 내에 측정기기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등 '24.6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 (보고 기간) ~'24.7.31일까지

따라서, 이런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리부터 방법론 EU-ETS에 익숙해지도록 하자. 만약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거나, 수입업자가 준비가 안된 상황이라면, 오히려 자료 제출을 일반사항에 대해 선제출하고, 이후 수정기간 내에 수정하는 전략으로 유도하자. 그렇지 않은 경우,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은 현재 10~50 €/tCO<sub>2e</sub>으로 책정되었으며, 6개월 이상 보고기간 이후에도 보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2회 연속으로 제출된 정보가 부정확한 것이 발견되면 과징금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은 수출품목에 대한 탄소가격을 이미 지불했는지 파악해야 한다. CBAM의 목적이 탄소누출을 막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EU 내에서는 EU-ETS 기반으로 책정된 무상할당량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만약 EU 밖에서 탄소가격을 이미 지불했다면(기지불 탄소가격) 수입품에 대한 고유 내재배출량 - 기지불한 탄소가격 - EU-ETS 기반으로 산정된 제품당 무상할당량을 제외한 배출량에 대해서만 CBAM 탄소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즉, tCO<sub>2e</sub>(/MWh)로 표기되는 만큼 톤당 탄소가격('23년 약 80~100유로)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환율은 기본적으로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에서 제시한 평균 환율에 의해 유로로 환산될 예정이다. 아직 국내에서 지불한 탄소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 바가 없어, '25.7월 이후에 확정된 이행규정을 참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지불 탄소가격을 도입함에 따라, EU는 탄소누출을 막고 비교적 경쟁우위가 있는 EU 내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키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통상의 흐름은 단편적이지 않고 공급망은 다변화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CBAM 대상 품목을 EU로 무조건 수출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만약 기업들이 모든 공정, 즉 가치사슬 자체를 모두 EU 밖으로 이전을 하여, 정작 EU로 수입될 때는 EU-ETS의 대상품목이 아닌 경우, CBAM에도 향후 포함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오히려 탄소누출을 심화시키는 극단적인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이런 탄소국경세로 벌어들인 수익을 EU 회원국에 어느 정도 할당이 될 예정이며, 나머지는 탄소감축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EU 회원국의 재정적 지원으로 쓰일 경우, EU 자국보호주의의 관점이 너무 자명하게 나타나고, 이에 대비를 못하는 국가 또는 기업은 탄소시대에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22년 말 기준으로 EU로 수출하는 기업들 중 CBAM에 해당하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국내에 1,700개사 정도로 집계된다. 여기에는 중소기업도 상당부분 포함된다. 아직 2년 남짓 전환기간이 남았다고 혹자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산정하며, 이를 제3자 검증을 거쳐 EU 수입업자와 소통하는 것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더 나아가, 이들의 경우, 보통 배출시설별 연료 전체 유량계 또는 전력량계만 갖고 있어, 연료량과 전력량을 구분 못할 수 있지만, '25년부터는 구분이 되어야 하니, 미리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생산공정별 사용되는 연료, 물질 또는 에너지별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는 보조 계량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 만약 현재 모니터링 방법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모니터링에 대한 개선 방법과 이행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자.

특히, 확정기간에는 수출 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에 대한 제3자 검증을 받아야 한다. 연 1회 받으면 되므로, 분기별 보고가 있더라도 연 1회만 받아서 제출하는 것으로 논의 중이다. 이는 '24.10월 이전에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 환경부는 국내 어떤 검증기관이 인정되는지 또는 어떤 검증 유형이 가능한지와 검증 기간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아무래도 현장 검증이 필요하므로, 국내 제3자 검증업체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될 가능성이 크다.

CBAM은 지금 우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대해, 국내 수출기업들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 차근차근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공급망 소식통

물류 전문기업과 한 번에 정리하는 홍해·파나마 물류 리스크 진단 및 대응 세미나



[작성]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파나마 갈수 현상 등에 따른 양대 운하 차질로 해상운임 상승, 선박 부족 등 물류 애로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류 전문기업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정보를 통한 물류 리스크 점검 및 대응책 파악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 일시 : '24.1.30.(화) 14:00~16:00
- ▶ 장소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 ▶ 대상 : 양대 운하 병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수출입 기업

### 프로그램 안내

시간	세부 일정		
14:00~14:10	'10	인사 말씀	한국무역협회 김고현 전무이사
14:10~14:40	'30	<b>물류리스크 진단 및 대응</b> • 파나마 · 수에즈 이슈 현안 • Global Risk Map • 글로벌 선사 부대할증료 • 리스크 대응방안	삼성 SDS 서돈석 그룹장
14:40~15:10	'30	<b>해운시황 전망 시나리오 분석</b> • '24년 해운시황 전망 • 양대 운하 이슈 예상 시나리오 •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LX판토스 황규영 팀장
15:10~15:30	'20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안	
15:30~16:00	'30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	

### 참가 신청·문의

- ▶ 참가신청 : [KITA 공지사항 페이지] 내 참여하기 선택하여 참가신청
- ▶ 관련 문의 : ☎ 02-6000-5935, ✉ kscn@kita.net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

## 글로벌 경제지표 (24.1.23.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 환율

	'21말	'22.말	'23.12말	1/19	1/22	1/23	전일비	23말비
₩/US\$	1,188.80	1,264.50	1,288.00	1,339.00	1,338.90	1,333.40	△0.41%	3.52%
선물환(NDF, 1월물)	1,190.00	1,265.30	1,286.80	1,336.60	1,336.60	1,331.30	△0.40%	3.46%
₩/CNY	186.51	181.44	181.37	186.08	185.35	185.94	0.32%	2.52%
₩/Y100	1,032.48	945.56	912.25	900.11	904.66	900.95	△0.41%	△1.24%
Y/US\$	115.14	133.73	141.19	148.76	148.00	148.00	0%	4.82%
US\$/EUR	1.1318	1.0617	1.1105	1.0877	1.0906	1.0906	0%	△1.79%
CNY/US\$	6.3681	6.9630	7.1092	7.1961	7.1962	7.1706	△0.36%	0.86%

\* 23년 평균 환율: (₩/US\$) 1305.9원, (₩/¥100) 931.6원, '24년 평균 환율('24.1.1~현재): (₩/US\$) 1322.3 (₩/¥100) 909.0원

###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분	'23년 최저(해당일)	'23.12.29	'24.1.22(전일)	'24.1.23	비율		
					전일비	'23년최저비	'23년말비
원유(두바이)	70.31(3.20일)	77.08	77.76	79.89	2.1	9.6	2.8
					2.7%	13.6%	3.6%
철광석	97.35(5.24일)	140.50	129.45	132.35	2.9	35.0	△8.2
					2.2%	36.0%	△5.8%
비철금속	구리 7,812.50(10.5일)	8,476.00	8,254.50	8,283.50	29.0	471.0	△192.5
					0.4%	6.0%	△2.3%
					알루미늄 2,068.50(8.21일)	2,335.50	2,110.00
					1.7%	3.7%	△8.2%
	니켈 15,885.00(11.27일)	16,300.00	15,785.00	16,010.00	225.0	125.0	△290.0
1.4%					0.8%	△1.8%	

### 반도체

	'21	'22	'23.10월	'23.11월	'23.12월	1/18	1/19	1/22	1월(~22)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1.55	1.66	1.74	1.89	1.90	1.90	1.84
(%, YoY)	29.9%	△23.0%	△35.6%	△23.1%	△14.8%	1.2%	1.9%	2.3%	△4.9%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40	6.42	6.38	6.37	6.38	6.41	6.37
(%, YoY)	14.7%	10.7%	△2.6%	△1.7%	△2.3%	△1.6%	△1.5%	△1.1%	△2.1%

###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분	'22.12.30	'23.12.29	'24.1.5	1.12	1.19	전주비(1.12)	
SCFI	1107.55	1759.57	1896.65	2206.03	2239.61	1.5%	'23년말비 27.3%

###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분	'22.12.23	'23.12.22	'24.1.17	1.18	1.19	1.22	1.23	전일비(1.22)	'23년말비
BDI	1515	2094	1308	1357	1503	1518	1473	△3.0%	△29.7%



#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gvc\\_monitoring@kotra.or.kr](mailto:gvc_monitoring@kotra.or.kr)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

[gvc\\_research@kita.or.kr](mailto: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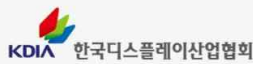


에너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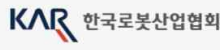
## 협력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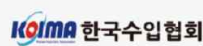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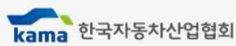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수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산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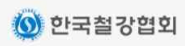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전략물자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